



## 역사 인식과 한일관계

洪元卓 (연구자문위원, 서울대 교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로 인접한 국가의 국민들 사이가 좋은 경우 보다는 나쁜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일양국 사이의 국민감정이 안좋은 것도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 특히 근세에 와서 한일 양국민 사이가 좋지 않게 된 것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와 연관된 악감정일 것이다. 대부분의 일본사람들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미안하다는 생각은 커녕 한국사람들을 멸시하고 잘난 체하고 있으며, 한국사람들은 일인들의 이러한 성향을 감지하고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대다수의 일본사람들은 2차대전을, 일본이 앞장서서 아시아를 백인들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려 했던 성스러운 전쟁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따라서 자신들은 아시아 여러나라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아주 좋은 일을 하려다가 미국이 투하한 원자폭탄의 피해자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과거 50여년 동안, 또 이 시간에도 수많은 일본의 정치적 지도자들이 소위 '망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다수의 정서에 아부하여 정치적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공고히 해보려는 노력일 뿐이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그들의 36년간 식민지 통치가 바로 '60년대 이후 지난 30여년간 한국의 고도성장을 가능케 한 '직접적' 원인이라고 믿고 있다. 즉 일제치하에서의 인적자원형성과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없었다면, 지금 이 정도 선진화된 한국경제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 사이의 친교라는 것은 서로가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사람의 대다수가 한국사람들에 대한 멸시감을 마음속 깊이 감추고 있는 한, 한일양국 사이에 진정한 친교관계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일본이 많은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에 대해 온갖 못된 짓을 하고도 국제사회에서 자기네들의 잘못을 인정안하고 버티게 된 데에는 한국사람들의 탓도 많은 것이다.

유대인들은 종전후 지금까지 50여년동안 나치스 독일이 유대인들에게 행한 잔학행위를 날 낱이 밝혀내고, 소설·영화·기타 대중매체를 통해 전세계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분명하게 알려주었다. 예컨대 『안네의 일기』를 한번 읽거나 『쉰들러 리스트』를 한번 보면, 독일사람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나치스 독일의 행위를 부끄럽게 생각안하고 감히 잘한 것이라고 말해볼 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사람은 자신들이 당한 온갖 수모를 제대로 문서화 혹은 영상화시키지도 못했고, 더더구나 온세상 사람들한테 알리는 일은 거의 시작도 안해본 것이다.

혹자는 시간이 더 지나가면 일본사람들 스스로가 좀더 반성을 하고, 지금과 다른 사고의 틀을 가지고 한국국민과 진정한 친교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지 모른다. 이것은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니겠지만, 일본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인식에 비추어보면, 그리 쉬운 일도 아닌 것 같다. 예컨대 한국의 사학계에서는, 조선 조정이 일본에 여러차례 보낸 통신사(通信使) 일행을, 그저 이웃나라와 친교를 도모하기 위한 행위였던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일본 사학계의 지배적인 관점은, 통신사가 바로 조공사였다는 것이다. 즉 조선이 일본의 쇼군(將軍)한테 통신사란 명칭으로 계속 조공관계를 유지했다는 발상이다. 일본 사학계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이와같은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반면 우리쪽에서는 일본사람들의 그릇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줄 본격적인 연구를 아무도 안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본 사학자들은 일방적인 연구결과를 계속 발표하고, 한국 사학자들은 연구를 제대로 안했으니 학문적으로 반박은 못하지만, 일본사람들의 이런 행동을 보고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도 대부분의 일본사람들은 조선과 평화롭게 지내도록 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보다는, 조선을 침략하면서 중국도 공격하겠다고 흰소리를 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들은 풍신수길의 좀더 오래 살았다면 1910년이 아니라 1600년대에 한반도를 정복할 수 있었을텐데 하고 아쉬워하는 것 같다.

여기서 우리는 왜 일본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이렇게 뒤틀린 역사적 인식과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나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원인을 캐기 위해서는 고대 한일관계를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 현재 일본의 각종 역사교과서들은 전통적인 일본 사학자들의 견해를 완곡하게 반영하고 있다. 온갖 언어의 기교와 표현상의 가식을 제거하고 그들 주장의 핵심을 추려서 간단하게 요약해 본다면, 일본땅에는 일찌기 4세기경에 야마토 왜라는 강력한 통일국가가 등장했으며, 이 야마토 정권은 한반도 남부에 미마나(任那)라는 식민지를 6세기까지 경영했으며, 한국의 북부는 옛날부터 한(漢)나라 같은 중국왕조의 식민지였었기 때문에, 한국이란 나라는 출발부터가 독립국가와는 거리가 먼 식민지적 성격을 가졌으며, 신라·백제 등이 왕

---

국으로 성립되어 삼국시대가 시작한 것은 4세기부터였을 뿐 아니라, 이들 삼국은 모두 야마토 조정에 조공을 바치는 종속적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다. 또 비록 신라의 한반도 통일 이후 일본은 그 영향력을 상실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를 되찾으려다 실패했으나, 드디어 20세기 초에 되찾게 되었다는 것이다. 삼국사기·삼국유사의 초기기록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와같은 내용의 고대사를 지금까지도 일반국민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일본이, 한국과 진정한 우호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다.

삼국사기 초기기록의 불신론을 주장하는 일본 사학자들의 견해가 전혀 근거없는 얘기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속일본기(續日本紀)의 기록은, 백제의 근구수왕이 태조 도모대왕으로부터 세어서 16대 왕이 된다고 말한다. 여기서 도모대왕이란 온조왕의 부친인 주몽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삼국사기가 근구수왕을 온조로부터 세어서 백제의 14대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아마도 김부식이, 재위기간이 아주 짧았던 왕 한명을 빼어버렸던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은 문주왕이 도모왕으로부터 세어서 백제 24대 왕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삼국사기는 문주왕을 백제 22대 왕으로 기록하고 있다. 신찬성씨록은 혜왕(惠王)이 도모왕으로부터 세어서 백제의 30대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삼국사기는 혜왕을 백제의 28대 왕으로 기록하고 있다. 신찬성씨록은 백제 7대 사반왕(서기 234년)을 조상으로 하는 씨족을 기록하고 있다. 신찬성씨록은 또 비류왕(比流王, 백제 11대 왕, 재위 304~344년)을 조상으로 하는 세개의 씨족을 기록하면서, 비류왕이 초고왕(백제 5대 왕, 재위 166~214년)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다.(出自百濟速古王孫比流王也). 동시에 신찬성씨록은 백제의 13대 왕 근초고(近肖古王, 재위 346~375년)의 후손을 조상으로 하는 씨족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신찬성씨록은, 삼국사기가 서기 166~214년 사이에, 또 서기 234년에 각각 왕위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백제왕들(초고왕과 사반왕)을 조상으로 하는 야마토 지배층의 씨족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신찬성씨록은 (11대) 비류왕이 (5대) 초고왕의 후손이라고 기록함으로써, (백제 13대) 근초고왕과 (5대) 초고왕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고대 한일관계에 대한 진실은 지금 어느 정도 밝혀져 가고 있다. 지금까지 발굴된 수많은 일본의 고분들의 내용물을 검사해 보면, 4세기 후반을 전후해서 아주 급격한 변화가 발견된다. 예컨대 그 이전시기의 고분에서는 말 뼈를 비롯해서 각종 마구(馬具) 등 말과 관련된 것이 전혀 없는데, 그 이후의 고분에서는 각종 철제 무기류와 함께 말에 관련된 물건이 대량으로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동경대학 교수인 「에가미 나미오」가 1948년부터 지금 바로 이 시간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은, 4세기 후반에 대륙으로부터 말을 타는 민족이 바다를 건너와 일본열도를 정복하고 통일국가를 세웠다는 소위 기마민족설이다. 한데 「에가미」와 그 추종자들은, 그 기마민족이 분명하게 누구였었는지를 애써 밝히지 않으려 했다. 아마도 그들은 일본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일부러 그 점을 애매한 상태로 처리해 왔던 것 같다. 하지만 712년에 완성된 고사기, 720년에 완성된 일본서기, 797년에 완성된 속일본기, 815년에 완성된 신찬성씨록 등 고대 일본사서들을 보면, 4세기말경 일본열도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던 토착농민을 정

---

복하고 야마토 조정을 세운 기마민족이 바로 백제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한반도에 백제가 존재하는 동안 야마토 조정은 백제와 아주 밀착된 관계를 유지했으나, 663년 백제가 완전히 멸망하고 숙적인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한 다음에는, 일본땅에서의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한반도와의 일체의 연관을 없애고 자신들이 태고적부터 일본을 지배해 온 토착세력이라는 형태로 역사를 고쳐쓰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일본의 각종 고대 역사책들을 읽어보면, 온갖 의문점들이 풀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고쳐쓰여진 역사는 일본 사회 각층에 성공적으로 주입되었고, 일본 사학자들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그 틀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백제에서 도래한 야마토 조정의 지배층은, 한반도가 숙적인 신라에 의해 통일되자, 자신들을 일본 고래의 토착세력으로 기술하는 역사책들을 편찬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일 관계를 적대관계로 설정했다. 그래도 일본이 백제계통 사람들에게 통치되고 있었던 기간 동안에는, 새로 만든 역사책들이 무엇이라고 기록을 했건 간에, 야마토 조정과 한국과의 관계가 아주 적대적일 수는 없었다. 하지만 10세기 이후, 백제계 야마토 지배계급이 실권을 상실하고 토착농민 출신인 사무라이(侍) 계급이 일본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사회의 지배층과 한국사람들과의 관계는 거의 단절되었다. 물론 신홍 무사계급의 지도자중 상당수가 전통적인 백제계통 사람들이었지만, 일본사회내의 실질적 지배세력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즉 백제계통 지배자들이 적대관계로 설정한 한일관계의 틀은 남고, 이들 백제계의 지배층은 토착 농민출신 무사계급에게 영구히 그 실권을 상실해 버린 것이다.

천년이상 마음속 깊이 감추어온 열등의식 때문인지, 전통적으로 일본의 사학계는 고대 한일관계의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오히려 당시에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식으로 왜곡을 해왔으며, 같은 맥락에서 근세 이후의 역사도 왜곡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사학계는 계속 왜곡된 역사를 일반대중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반면, 한국의 정부나 사학계에는 하루속히 이를 바로잡아 주려는 의지가 없다는 지금까지의 현상이 지속되는 한, 단순히 경제적 교류의 확대를 통해서 진정한 한일 우호관계를 수립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 필자 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사(1962)

미국 Columbia 대학교 경제학 석사, 박사(1966)

미국 Wisconsin 대학교 조교수(1966~71)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연구원(1971~77)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1977~현재)

영국 Sussex 대학교 Visiting Fellow(1979~80)

미국 해외발전위원회 초빙연구원(1980)

세계경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1993~현재)

## 세 계 경 제 연 구 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

전화 : 551-3334/7

Fax : 551-3339